

양육유형과 가정환경자극에 따른 유아의 언어이해능력, 자기조절능력 연구*

The effects of surrogate parenting type and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on children's
abilities for language comprehension and self-control

이 가 현**	이 정 숙	이 현	김 현 수***
한양대학교 대학원 아동심리치료학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아동심리치료학과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아동심리치료학과
Lee, Ga-Hyun	Lee, Jung-Sook	Lee, Hyun	Kim, Hyun-Soo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language comprehension and self-regulation abilities of children in relation to changes in parenting styles due to social phenomena, such as the increase of double-income households and working mothers. Toward this end, a survey and a test was given to children, parents and teachers currently living in the capital of Seoul. Data from 265 children were analyzed for study as well as the data from parents and teachers. The parenting types of participating children were classified into parental parenting and surrogate parenting; 181 subjects received parental parenting and 84 were raised by surrogates.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imulation found in children's home environment, language comprehension and self-regulation by types of parenting. The findings showed little difference in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However, children who received surrogate parenting had significantly lower levels in their language comprehension and self-regulation abilities. The type of parenting affected language comprehension ability under the development facilitating environment. In addition, type of parenting affected children's self-regulation ability in the condition of a development facilitating environment, responsive interaction, and regular parental stimuli. In case of surrogate parenting, language comprehension ability was affected by the development facilitating environment and responsive interactions in the family environment, whereas high levels of self-regulation ability was affected by repetitive family environment stimulus within a regular parental upbringing. This study discusses the language comprehension and self-regulation of children by parenting types and home environment stimulus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s.

주제어(Keywords): 가정환경(Family Environments), 언어이해능력(Language Comprehension), 자기조절능력(Self-Regulation)

* 본 논문은 석사논문의 일부임.

** 주저자 : 한양대학교 대학원 아동심리치료학과 박사 수료(E-mail: sagegaga@hanmail.net)

*** 교신저자 : 한양대학교 대학원 아동심리치료학과 교수(E-mail: khs1004@hanyang.ac.kr)

I. 서론

인간의 발달단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는 양육자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관계를 맺으며 가정환경 속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으며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여 성장해간다. 현대사회의 여성의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영유아를 둔 가정의 구조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통계청 자료(2015)에 따르면 주 출산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다섯 가정 중 두가정이 맞벌이가정(43.9%)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부모의 경우, 일과 가정의 동반성장과 균형 있는 조화를 위하여 양육에 대한 전통적 관념의 변화를 가져왔다. 어머니에게 치중되어있었던 양육이 아버지와 함께 함으로써 양육을 공유하고 분담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다(이영환, 2008). 하지만, 부부의 공동양육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으로 인하여 힘든 경우, 부모세대의 해체로 인하여 양육이 힘든 경우, 양육의 기능을 보충해주기 위하여 부모가 아닌 대리자 의한 양육유형의 변화를 이루며 증가하였다(박혜영, 2000; 백지혜, 2009).

양육 유형은 부모의 소득·생활수준·근무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어 나타났다. 양육유형의 구분은 크게 부모가 양육하는 부모양육과 대리자에 의하여 양육되어지는 대리양육의 형태로 나뉘었으며, 대리양육은 조부모, 친인척, 보육시설, 도우미양육, 격리탁아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연구되었다(김영미, 2006; 윤미, 2008; 이윤미; 2013). 선행연구에서는 부모는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교육보다는 안전 및 보호를 중시하였으며 기관이나 타인을 통한 양육방식을 선택하기보다는 실제 가정과 유사

한 환경 속에서 조부모 혹은 친인척 등의 혈연관계에 의한 개별적 양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박세경, 이진우, 2004). 이렇듯 사회적 환경 변화에 의한 양육유형의 다양화와 유아가 속한 환경에서의 발달의 차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Bloom(1964)는 환경을 개인에게 주어지는 조건 및 외적자극으로 정의하면서 많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지 못한 환경에 비하여 인간의 행동 특성을 변화시킨다고 역설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간의 지능의 50%가 태아에서부터 만4세까지 발달되며 전체 지능의 80%가 만8세까지 이루어진다고 할 때(Bloom, 1964), 가정 내 문화적·교육적 환경 자극조성은 유아의 다양한 감각적 능력을 발달시키고, 지능발달 및 다른 여러 가지 발달에도 차이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김연진, 이상희, 2007). 따라서 양육과 가정환경 내 자극은 유아의 인지·정서·사회적 발달에 일방적인 영향이 아닌 상호보완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김수진, 2009; 박호선, 2002; 송민서, 2013).

또한, 양육자와 가정환경 속에서 유아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언어를 중요한 도구로 사용한다. 언어의 발달과정이 단순하게 나열된 단어를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단어들 간의 구체적 관계와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때(Maher & Groves, 1996; 2001), 발달과정에서 단어들의 단순한 반복에 따른 모방형태가 발전하여 어휘력이 늘어나고 문법의 자연적 습득과 문장의 구성이 일어난다고 보았다(이경열, 2005). 또한 행동을 통하여 들은 말에 대한 반응을 보이면서 언어를 자기 것으로 내면화하여 언어에 대한 인지적 지도를 구성하였으며(고은영, 2009; Nation & Angell, 2006; Sulzby, 1985), 양육

자가 유아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야기 속 문장과 그림과의 관계를 알려주거나, 유아가 자신의 경험적 이야기를 할 때 경청해주고, 유아의 질문에 대하여 양육자가 적절한 반응과 칭찬, 격려를 해준다면 유아의 언어 이해의 모델링으로 작용하여 언어이해능력을 더욱 발전시킨다고 하였다(김영태, 2000; 송명자, 2008; Conlon, 1992). 따라서 유아의 언어 발달과정은 한 변인에 의한 것이 아닌 다양한 변인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Luria(1961)과 Vygotsky(1962)는 언어 발달과 더불어 자기조절능력이 발달한다고 보았다. 자기중심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사고하면서 오감을 통한 직·간접적인 경험이 축적되고, 자신의 주장이나 감정의 제한을 경험하여 상황에 맞는 표현방법의 기초를 습득하는 것이다(Luria, 1969; Thompson, 1994). 또한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제해결 전략을 구성하고 평가하는 인지조절능력의 향상과 자신의 정서의 긍정적·부정적인 인식과 표현을 통한 정서조절방법을 학습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원활한 대인관계와 사회적응 및 행동을 표출할 수 있게 된다(양옥승, 2006; Ashiabi, 2000, Bodrova & Leing, 1996, Bronson, 2000).

종합해 보면, 유아기의 양육자와 가정환경 속 다양한 자극은 유아의 언어적 이해 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의 향상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양육자의 변화는 무엇보다 유아의 안정성 및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대리자에 의한 양육과 환경의 영향에 따라 영·유아의 발달에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였다(박이심, 2003; 박영하, 2005; 백지혜, 2009; Eshel, Landau, Daniely & Benaaron, 2000).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영아기의 대리양육에 대한 연구(백지혜, 2009; 양연숙, 2000; Pierrehumbert, 2002)와 조부모양육의 유형으로 한정된 연

구(김은희, 2005; 성현정, 2008, 이은영, 유아가 속한 사회인 가정 및 기관과의 영향(김경중, 이찬숙, 조은주, 2008; 김종훈, 성지현, 2014; 정태숙, 김영희, 2014; Altman & Wohlwill, 1978; Wachs, Uzgiris, & Hunt, 1971)의 관계로 연구되어진 것으로 볼 때, 양육유형을 부모양육과 대리양육으로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유아의 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정환경자극변인임을 강조한 연구(설경옥, 문혁준, 201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환경의 구비와 활용(김수진, 2009), 가정 내 상호작용(권석희, 2001), 사회·정서 발달과의 관계(윤미, 2008; 임현주, 이대균, 2013; 최문희, 2010; 현금옥, 2003; Olson, Lopez-Duran, & Chang, Sameroff, 2011)로 환경과의 관계가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많은 연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언어이해능력이 발달함을 밝힌 실험연구가 많았다. 자기조절능력은 부모변인에 따른 영향(박호선, 2002; 송민서, 2013; 이정란, 2003),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과 정서조절과의 관계(고유미, 2009; 김민정, 2008; 임희수, 2001)로 유아의 연령과 환경적 영향의 연관성이 있으며 자기조절에 영향을 밝힌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된 양육유형을 부모양육과 대리양육으로 나누고 가정환경자극에서 유아의 언어이해 능력과 자기조절능력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유형과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언어이해능력, 자기조절능력 차이를 나타내는가?

둘째, 양육유형과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언어이해능력,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양육유형과 가정환경자극에 따라 유아의 언어이해능력, 자기조절능력의 차이와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소재 유치원·어린이집 10곳을 선정하여 유아의 학부모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동의서를 얻어 시행하였다. 최종 연구대상 유아는 만4세 146명(55.1%), 만5세 119명(44.9%)으로 총 265명의 유아가 검사에 참여하였으며 학부모와 교사에게 설문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의 양육유형의 구분을 위하여 '주양육자'의 의미를 유아가 유치원·어린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제외(오후 3시까지)하고 오후 3시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일주일간 20시간 이상 유아를 돌보아준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양육유형을 정의에 따라 부모가 양육하는 '부모양육'과 어머니 이외의 대리인이 돌보는 '대리양육'으로 구분하였으며, 대리양육의 종류를 조부모, 육아도우미, 기관보육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 유아의 부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아버지의 연령은 40~45세 미만이 부모양육은 87명(48.1%), 대리양육은 32명(38.1%)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의 학력이 가장 많았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의 차이는 많은 차이를 보이

<표 1> 연구대상 부모의 특성(n=265)

		부모양육		대리양육		합계	
구분						N(%)	
부 연령	30-35세 미만	8	(4.4)	2	(2.4)	10	(3.8)
	35-40세 미만	55	(30.4)	34	(40.5)	89	(33.6)
	40-45세 미만	87	(48.1)	32	(38.1)	119	(44.9)
	45-50세 미만	25	(13.8)	11	(13.1)	36	(13.6)
	50세 이상	4	(2.2)	2	(2.4)	6	(2.3)
	아버지 안계심(편모가정)	2	(1.1)	3	(3.6)	5	(1.9)
부 학력	고졸	32	(17.7)	10	(11.9)	42	(15.8)
	전문대졸	10	(5.5)	4	(4.8)	14	(5.3)
	대졸	103	(56.9)	47	(56.0)	150	(56.6)
	대학원 이상	34	(18.8)	20	(23.8)	54	(20.4)
	아버지 안계심(편모가정)	2	(1.1)	3	(3.6)	5	(1.9)
부 주당 평균근무시간		53.4시간		51.87시간		52.9시간	
모 연령	30-35세 미만	23	(12.7)	6	(7.1)	29	(10.9)
	35-40세 미만	95	(52.5)	50	(59.5)	145	(54.7)
	40-45세 미만	57	(31.5)	21	(25.0)	78	(29.4)
	45-50세 미만	5	(2.8)	4	(4.8)	9	(3.4)
	50세 이상	1	(.6)	0	(.0)	1	(.4)
	어머니 안계심(편부가정)	0	(.0)	3	(3.6)	3	(1.1)
모 학력	고졸	46	(25.4)	10	(11.9)	56	(21.1)
	전문대졸	12	(6.6)	7	(8.3)	19	(7.2)
	대졸	97	(53.6)	47	(56.0)	144	(54.3)
	대학원 이상	26	(14.4)	17	(20.2)	43	(16.2)
	어머니 안계심(편부가정)	0	(.0)	3	(3.6)	3	(1.1)
모 주당 평균근무시간		39.0시간		46.0시간		42.8시간	

지 않았다. 어머니의 연령은 35~40세 미만 이 부모양육은 95명(52.5%), 대리양육은 50명(59.5%)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의 학력이 많았다. 부모양육의 경우 대부분이 전업주부 118명(65.2%)로 나타났으며, 대리양육의 어머니의 경우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6시간으로 나타났다.

대리양육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아의 친조모,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부모양육’, 비혈연 관계인 대리인에게 양육하는 ‘육아도우미양육’,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사에 의하여 종일보육을 하는 ‘기관보육’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대리양육자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양육유형 중 대리양육의 특성 (n=84)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대	8.3
	30대	7.1
	40대	2.4
	50대	21.4
	60대	51.2
	70대	9.5
국적	한국	90.5
	중국	9.5
유아와의 관계	조부모	57.1
	육아도우미	26.2
	보육기관	14.3
	기타	2.4
결혼상태	미혼	10.7
	기혼	89.3
주당 대리양육시간	38.5시간	

2. 연구도구

1) 가정환경자극척도

유아의 가정환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지현, 정형심, 김정민, 이순형(2012)에 의하여 개발되어진 한국에 적합한 가정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인 3~5세 유아용 가정환경척도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유아의 부모가 직접 평정하도록 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발달촉진환경(7문항), 반응적 상호작용(7문항), 다양한 경험(4문항), 규칙적 양육(3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달촉진환경은 지적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조성과 놀이와 학습을 돕는 놀잇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반응적 상호작용은 아이와 대화를 하며 칭찬, 질문을 잘하고 대담해 주며 요구를 알아차려 반응하여 발달수준에 맞추는가를, 다양한 경험은 여가시간에 가정 밖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규칙적인 생활은 유아에게 하루 일과에 있어서 스케줄이 있는지, 규칙적 취침과 TV시청제한의 유·무와 같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측정은 각 문항별 ‘예(1)점’, ‘아니오(0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가정환경 자극이 풍부한 것을 의미한다. 검사도구의 Cronbach's α 로 측정된 신뢰도 계수는 .73이었다.

2) 언어이해능력검사

유아의 언어이해능력검사는 배소영, 김선숙, 이지희, 장혜성(2004)이 만4세~만9세 아동의 구문이미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 표준화 되어진 구문이미이해력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유아의 언어이해능력과 언어 표현력, 의미·문법·화용·음운을 각 영역별로 평가할 때와 구문의미에 대한 언어 평가 과정의 하나로 이용할 수 있으며 표준화 과정을 통해 또래 아동에 대한 상대적 위치도 파악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총 57개 문항으로 검사방법과 주의점을 숙지한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3인이 유아와 1:1의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언어이해력 검사는 제시된 세 가지 그림을 보고 검사자가 읽는 문장을 듣고 가장 적합한 그림을 찾도록 유도 하였으며, 연습문항 1, 2

를 실시하면서 유아가 이해하지 못할 경우 검사를 중단하였고, 아동이 요구할 경우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주었다. 유아의 반응에 따라 정반응의 경우 '+ (1점)', 오반응일 경우 '- (0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NR (No Response)', 모르겠다고 하면 'DK (Don't Know)'로 기록하였으며 검사를 연속하여 3개 항목이 틀리면 천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검사를 중단하여 천정점 이후의 항목은 틀린 것으로 채점하였다.

본 연구대상 유아 만4,5세의 언어이해능력 검사의 평균 원점수는 29.98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11.33이다. 검사도구의 Cronbach's α 로 측정된 신뢰도 계수는 .97이었다.

3) 자기조절능력검사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은 양옥승(2006)이 교사용으로 개발한 자기조절능력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평정하는 것으로, 인지조절과 정서조절의 두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조절은 계획하기(13문항), 점검 및 평가(21문항)로, 정서조절은 정서인식하기(22문항), 정서억제하기(12문항), 대처하기(16문항)의 총 다섯 하위차원들의 총8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조절의 계획하기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전략과 정보처리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으로 자기인지·역할과 책임·자율적 선택·목적과 전략·상황과 능력에 대한 적절한 계획도 포함하며, 점검 및 평가는 자신의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이해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써 수행과정인식·점검·조정·계획-수행과정 평가·전략수정 및 수정전략실행이 포함되어 있다. 정서조절의 정서인식하기는 자신과 타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공감과

대처능력, 자기조절능력을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을, 정서 억제하기는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행동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하는 능력을, 대처하기는 자신이 정서수준을 파악하고 문제 상황과 자신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평가하는 행동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를 이용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전체 86문항 중 자기조절 점수가 많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로 측정된 신뢰도 계수는 인지조절은 .96, 정서조절은 .93, 전체 자기조절 능력은 .96으로 모두 허용할만한(acceptable) 수준이었다.

3. 연구절차

설문 시행에 앞서 유아에게 시행하는 언어이해능력검사와 담임교사가 시행하는 자기조절능력 척도의 적절성 및 소요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예비연구를 시행하였다. 예비연구의 대상은 이 연구의 참여하지 않는 A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4세와 만5세 유아 각각 10명(남아:5명, 여아5명)씩 총 20명과 그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예비연구 실시 결과 언어이해능력검사는 유아 1인당 7분~15분이 소요되었고, 교사용 자기조절능력 척도는 약20분이 소요되었다.

예비연구이후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유치원·어린이집 10곳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장 및 만4,5세 반 담임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다. 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학부모님들께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한 후 참여의사를 밝힌 아동 중 신체발달이 정상이고 청각 및 기타 신경학적 문제가 없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유아의 기본 정보와 양육유형의 구분, 가정환경자극에 대한 설문은 학부모가 시행하

였으며, 언어이해능력검사는 연구자와 검사 시행방법의 교육을 받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연구보조원 3인(연구보조원 2인, 연구보조원 감독1인)이 검사에 방해받지 않는 검사공간에서 유아와 검사자가 1:1로 시행하였다. 자기조절능력검사는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척도의 실시 방법과 평정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대상 유아를 각각 평정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설문지 265부의 유효 표본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분석을 위해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양육유형에 따라 가정환경자극, 언어이해능력, 자기조절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시행하였으며, 양육유형에 따라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언어이해능력,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양육유형에 따른 가정환경자극, 언어이해능력, 자기조절능력의 차이

양육유형을 부모교육과 대리양육으로 나누는 양육 유형에 따라 유아의 가정환경, 언어이해능력, 자기조절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유아의 양육유형에 따른 가정환경자극의 차이는 부모양육과 대리양육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언어이해능력은 대리양육(M=32.12, SD=11.14), 부모양육(M=28.99, SD=11.32)로 대리양육을 받고 있는 유아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11, p<.05)를 보여, 대리양육유형의 유아들이 부모양

<표 3> 양육유형에 따른 가정환경자극, 언어이해능력, 자기조절능력의 차이

구 분		N=265				t	
		부모양육 (n=181)		대리양육 (n=84)			
		M	(SD)	M	(SD)		
가정환경	발달촉진환경	5.85	(1.38)	6.02	(1.35)	-.96	
	반응적 상호작용	5.45	(1.44)	5.44	(1.59)	.04	
	다양한 경험	3.37	(.86)	3.26	(.98)	.91	
	규칙적 양육	2.20	(.90)	2.08	(.95)	.96	
	합 계	16.87	(3.17)	16.81	(3.28)	.14	
언어이해능력		28.99	(11.32)	32.12	(11.14)	-2.11*	
자기조절능력	인지	계획하기	2.95	(.45)	3.05	(.46)	-1.65
		점검 및 평가	2.81	(.41)	2.89	(.40)	-1.48
	전 체		2.87	(.41)	2.95	(.41)	-1.64
	정서	정서인식	3.06	(.31)	3.15	(.34)	-2.25*
		정서억제	2.88	(.44)	2.94	(.45)	-1.13
	조절	대처하기	2.66	(.43)	2.71	(.43)	-.95
		전 체		2.88	(.28)	2.96	(.29)
전 체		2.87	(.30)	2.96	(.32)	-2.03*	

*p<.05

육 유아들에 비하여 더 높은 언어이해능력이 관찰되는 의미있는 결과이다.

자기조절능력은 대리양육($M=2.96, SD=.32$)이 부모양육($M=2.87, SD=.3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03, p<.05$)를 보였다.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조절에서보다 정서조절에서 유의한 차이($t=-2.03, p<.05$)를 보였으며 이 중 정서인식능력에서 유의한 차이($t=-2.25, p<.05$)를 나타내었다. 유아의 대리양육유형이 부모양육유형에 차이를 보이는 결과에 따라 대리양육자를 조부모(a), 육아도우미(b), 보육기관(c)으로 나누어 대리양육자에 따른 가정환경자극, 언어이해능력,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여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대리양육자의 구분에 따른 가정환경자극의 하위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언어이해능력은 보육기관(c), 조부모(a), 육아도우미(b)의 순서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내지 않았다. 자기조절능력은 대리양육자의 구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보육기관(c, $M=3.16, SD=.37$), 육아도우미(b, $M=2.99, SD=.27$), 조부모(a, $M=2.91, SD=.3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검정 결과 보육기관에서 대리양육을 하고 있는 경우 자기조절능력이 높게 나타났다($F=3.51, p<.05$). 하위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조절능력의 계획하기($F=3.28, p<.05$), 정서조절능력의 정서인식($F=3.60,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사후검정 결과에서도 보육기관에서 대리양육을 하고 있는 유아들이 육아도우미나 조부모의 형태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 양육유형 중 대리양육자에 따른 가정환경자극, 언어이해능력, 자기조절능력의 차이

구 분		조부모 (n=48) a		육아도우미 (n=22) b		보육기관 (n=12) c		F	Duncan test	
		M	(SD)	M	(SD)	M	(SD)			
가 정 환 경	발달촉진환경	5.92	(1.40)	6.32	(.84)	5.83	(1.95)	.77		
	반응적상호작용	5.46	(1.64)	5.27	(1.55)	5.92	(1.44)	.65		
	다양한 경험	3.21	(1.01)	3.41	(.85)	3.08	(1.16)	.49		
	규칙적 양육	2.00	(.95)	2.36	(.73)	2.17	(1.11)	1.20		
	전 체	16.58	(3.71)	17.36	(1.99)	17.00	(3.67)	.43		
언어이해능력		32.27	(10.65)	31.23	(11.27)	33.50	(14.29)	.16		
자 기 조 절 능 력	인 지 조 절	계획하기	2.99	(.45)	3.04	(.40)	3.36	(.51)	3.28*	a,b<c
		집중및평가	2.86	(.40)	2.89	(.33)	3.13	(.38)	2.55	
		전 체	2.91	(.40)	2.95	(.34)	3.23	(.42)	3.16*	a,b<c
	정 서 조 절	정서인식	3.10	(.35)	3.16	(.22)	3.38	(.38)	3.60*	a,b<c
		정서억제	2.86	(.44)	3.06	(.45)	3.08	(.46)	2.17	
		대처하기	2.65	(.42)	2.83	(.39)	2.73	(.53)	1.29	
		전 체	2.90	(.27)	3.02	(.26)	3.10	(.35)	3.31*	a<c
	전 체		2.91	(.31)	2.99	(.27)	3.16	(.37)	3.51*	a<c

* $p<.05$

2. 양육유형에 따른 가정환경이 언어이해능력,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양육유형에 따라 가정환경자극요인이 언어이해능력과 자기조절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양육유형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부모양육 유형의 유아들의 경우 발달촉진환경($\beta=.28, p<.001$)이 언어이해능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능력의 경우 발달촉진환경($\beta=.18, p<.01$)과 반응적 상호작용($\beta=.16, p<.01$), 규칙적 양육($\beta=.19, p<.01$)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양육 유형의 유아들의 경우 발달촉진환경($\beta=.24, p<.05$)과 반응적 상호작용($\beta=.25, p<.05$)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조절능력의 경우 규칙적 양육($\beta=.28, p<.05$)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환경 내 언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달촉진환경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반응적 상호작용도 언어이해능력 향상에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는 부모양육 유형에서 발달촉진환경과 반응적 상호작용, 규칙적 양육이 자기조절능력에 중요한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었고, 대리양육 유아의 경우 규칙적 양육요인이 자기조절능력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유아의 양육유형에 따른 가정환경요인들의 언어이해능력에 대한 설명력은 부모양육은 11%, 대리양육은 15%로 나타났으며,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설명력은 부모양육은 14%, 대리양육은 21%로 나타났다.

전체 유아의 가정환경자극이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하위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부모양육 유형의 유아들의 경우 인지조절 능력은 발달촉진환경($\beta=.15, p<.05$)과 규칙적 양육($\beta=.20, p<.01$)이 유의한 영향을 미

<표 5> 양육유형구분에 따른 가정환경이 유아의 언어이해능력과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N=265							
양육유형	종속변인 독립변인	언어이해능력				자기조절능력			
		b	SE	β	t	b	SE	β	t
부모양육 (N=181)	(상수)	9.93	4.48		2.22	2.35	.12		20.35
	발달촉진환경	2.29	.63	.28	3.63***	.04	.02	.18	2.44*
	반응적 상호작용	.16	.65	.02	.24	.03	.02	.16	2.02*
	다양한 경험	1.11	1.03	.08	1.08	-.01	.03	-.03	-.34
	규칙적 양육	.47	.97	.04	.49	.06	.02	.19	2.49*
		R ² =.11, Adjusted R ² =.09, F=5.89***			R ² =.14, Adjusted R ² =.12, F=7.10***				
대리양육 (N=84)	(상수)	9.39	6.29		1.49	2.33	.17		13.35
	발달촉진환경	2.01	.99	.24	2.04*	.03	.03	.12	1.03
	반응적 상호작용	1.75	.77	.25	2.26*	.01	.02	.04	.35
	다양한 경험	.44	1.28	.04	.34	.07	.04	.20	1.86
	규칙적 양육	-.17	1.36	-.01	-.13	.09	.04	.28	2.49*
		R ² =.15, Adjusted R ² =.11, F=3.58**			R ² =.21, Adjusted R ² =.17, F=5.13***				

*p<.05, **p<.01, ***p<.001

〈표 6〉 양육유형구분에 따른 가정환경이 유아의 인지조절능력과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N=265								
양육 유형	종속변인		인지조절				정서조절			
	독립변인		b	SE	β	t	b	SE	β	t
부모 양육 (N=181)	(상수)		2.20	.16		13.86	2.50	.11		22.39
	발달촉진환경		.05	.02	.15	2.04*	.03	.02	.17	2.15*
	반응적 상호작용		.04	.02	.16	1.96	.02	.02	.12	1.40
	다양한 경험		-.01	.04	-.03	-.41	.00	.03	-.01	-.13
	규칙적 양육		.09	.03	.20	2.70**	.03	.02	.10	1.31
			R ² =.13, Adjusted R ² =.11, F=6.58***				R ² =.08, Adjusted R ² =.06, F=6.64***			
대리 양육 (N=84)	(상수)		2.19	.23		9.66	2.48	.16		15.56
	발달촉진환경		.04	.04	.12	1.05	.02	.02	.09	.77
	반응적 상호작용		.02	.03	.08	.78	-.01	.02	-.04	-.34
	다양한 경험		.06	.05	.14	1.28	.07	.03	.25	2.27*
	규칙적 양육		.11	.05	.26	2.31*	.08	.03	.25	2.19*
			R ² =.18, Adjusted R ² =.14, F=4.41***				R ² =.18, Adjusted R ² =.14, F=4.27***			

*p<.05, **p<.01, ***p<.001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조절능력은 발달촉진환경($\beta=.17, p<.05$)의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양육 유형의 유아들의 경우 인지조절 능력은 규칙적 양육($\beta=.26, p<.05$)이, 정서조절능력에서는 다양한 경험($\beta=.25, p<.05$)과 규칙적 양육($\beta=.25, p<.05$)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유아를 양육하는 유형에 있어 차이는 보였으나, 가정환경에서 유아의 발달촉진환경을 조성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적 자극을 갖춘 양육이 유아의 인지조절 및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양육유형에 따른 가정 환경에서 언어이해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의

관계 및 영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유아의 양육유형에 따라 가정환경이 유아의 언어·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양육 유형의 구분에 앞서 ‘주양육자’의 의미를 정의하고 부모양육과 대리양육의 유형을 구분 하였다. 양육유형의 구분에 따라 가정환경 자극과 언어이해능력,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 양육유형에 따른 가정환경자극이 언어이해 능력과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유아의 더 나은 발달을 위한 가정환경자극 구성에 대해 조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하여 유아의 양육유형에 따른 가정환경자극, 언어이해능력, 자기조절능력의 차이를 연령에 따라 각각 나누어 보았을 때, 양육유형과 가정환경 자극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언어이해 능력에서는 대리양육 유아들이 부모양육의

유아들에 비하여 언어이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리양육의 세가지 양육유형의 구분에 따라 보육기관, 조부모, 육아도우미의 순서로 언어이해능력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장영애(1995)의 연구에서 4~6세 연령에 따라 가정환경자극에 의하여 언어이해능력의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와 일치하나, 부모양육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다른 양육형태보다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강병재, 2007; 김반재, 장성오, 2011; 이숙희, 2010). 자기조절능력에서는 대리양육유형의 유아가 전체적으로 부모양육의 유아보다 자기조절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정서조절의 정서인식이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대리양육 유형의 구분에 따라 가정환경자극의 하위요인과 언어이해능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기조절능력에서는 보육기관, 육아도우미, 조부모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인지조절의 경우 계획하기와 정서조절의 정서인식하기가 보육기관에서 대리양육을 하고 있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관에서 교사는 유아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는 존재로 교사의 교수행동 중 교실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식적으로 일어나는 교수상호작용에 따라 유아의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본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Guo, Piasta, Justice & Kaderavek, 2010; Rimm-Kaufman, Curby, Grimm, Nathanson & Brock, 2009).

둘째, 유아의 양육유형에 따른 가정환경자극이 언어이해능력과 자기조절능력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양육에서는 자녀의 지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조성과 놀이와 학습을 돕는 놀잇감을 갖고 있는 발달촉진환경 조성 시 언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리양육에 경우 발달촉진환경과 유아의 질문과 요구에

맞춰 반응하며 잘 알아차리는 상호작용 시 유아의 언어이해능력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초기 경험이 발달과정에서 유아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정환경자극변인임을 강조한 연구(설경옥, 문혁준, 2011), 가정환경이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김경후, 2011; 김수진, 2009)와 일치하며, 유아의 언어습득은 환경에 따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김길숙, 2009; 김은비, 2012; 이정주, 2000; 이진희, 1999)한다. 언어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들에게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해하고 개념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발달을 도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나, 부모양육의 경우 양육 이외에 집안일과 양육이 분리되지 않고 병행되어지는 상황에서 의하여 대리양육보다 상호작용에 대한 민감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백지혜(2009)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양육에서는 발달촉진환경과 반응적 상호작용, 규칙적 양육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리양육인 경우 규칙적인 양육이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유아의 발달 촉진과 관련된 환경을 위한 놀잇감이나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스케줄이나 시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규칙을 갖도록 양육하는 유아들이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양육유형의 구분을 통하여 유아가 속한 가정환경과 언어발달과 자기조절능력의 발달간의 관계에 대한 부족한 우리의 지식기반을 넓히는데 기여하였으며, 유아의 더 나은 성인으로의 성장 발달을 위한 환경개입에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추후 연구를 위한 제

한점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한된 서울시내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있어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부모양육유형과 대리양육유형의 크기의 차이에 있어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과 표집지역의 확대, 양육유형의 비슷한 크기 설정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양육유형에 따라 가정환경 자극, 언어이해능력,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맞벌이 부모의 증가로 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아의 양육형태와 양육자에 대한 구분, 대리양육자와 양육환경, 유아의 발달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양육유형과 가정환경 자극이 유아의 언어이해능력과 자기조절능력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아가 더 나은 성인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양육자의 양육가치를 중시하고 유아의 고유한 수준을 맞추어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을 구성하고 적절한 반응과 상호작용을 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석희 (2001). 가정 문해 활동이 유아의 언어이해력 및 수학적 소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병재 (2007). 아동양육형태에 따른 아동의 언어 발달 및 사회성 발달의 차이. 아동교육, 16(3), 69-84.
- 고유미 (2009).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사회적 능력의 관계. 전북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은영 (2009). 유아 듣기 발달 및 듣기교육 연구동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중, 이찬숙, 조은주 (2008). 유아 개인, 가정환경, 지역변인에 따른 유아의 문제행동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2(2), 353-373.**
- 김경후 (2011). 가정의 문식환경과 유아의 언어능력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길숙 (2009). 가정 문해 환경과 교실 문해 환경이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반재, 장성오 (2011). 일반부모양육 영아와 조부모양육 영아의 언어발달 차이. **한국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5, 207-221.**
- 김민정 (2008). 부모의 정서표현유형과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 (2009). 가정환경변인이 유아의 언어능력이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박세경, 이건우 (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23.**
- 김연진, 이상희 (2007). **부모교육. 태영출판사.**
- 김이영 (2014). 유아의 문제행동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1), 136-153.**
- 김영미 (2006).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대리양육경험이 여중생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비 (2012). 환경요인에 따른 언어습득능

- 력의 차이에 관한 연구. **에니어그램 연구, 9(1), 107-137.**
- 김은희 (2005). 취업모의 유아기 자녀를 돌보는 조모 역할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태 (2000).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척도(PRES)의 타당도 분석. **특수교육학 연구, 35(2), 1-20.**
- 김지현, 정현심, 김정민, 이순형 (2012). 유아용 가정환경 척도 개발 연구. **아동교육, 21(1), 77-92.**
- 김중훈, 성지현 (2014).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가정 및 기관에서의 문제행동 개인차와 교사-유아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학회, 34(6), 391-410.**
- 박영하 (2005). 양육경험에 따른 유아의 애착안정성.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이심 (2003). 대리양육자 교체수에 따른 취업모 자녀의 언어발달 및 공격성 연구. 동아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호선 (2002).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과 유아의 자기조절행동발달 간의관계.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영 (2000). 취업모 보육프로그램 욕구에 관한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개발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배소영, 임선숙, 이지희, 장혜성 (2004). **구문의미이해력검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
- 백지혜 (2009). 타인양육유형과 다중애착안정성 유형에 따른 영아의 상호작용의 질 및 순응성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설경옥, 문혁준 (2011). 취학전 유아의 가정환경자극 및 양육효능감과 가족건강성과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1), 23-40.**
- 성현정 (2008). 손자녀 대리양육 수행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 변인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 (2008). **발달심리학. 학지사**
- 송민서 (2013). 자기조절능력, 교사-유아관계 및 가정환경이 유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성균 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연숙 (2000). 영아의 타인양육 경험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정서조절.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옥승 (2006). 3-6세 유아의 자기조절력 측정척도 개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61-187.**
- 윤미 (2008) 아동의 타인양육 경험 및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렬 (2005). 저소득 가정 어머니-유아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과 유아의 언어능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미 (2013). 취업모와 보조양육자의 양육행동일치 및 역할 만족도가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 (2005). 취업모와 대리양육 경험분석-조모의 손자녀 양육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 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환 (2008).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부모 공동양육의 관점에서. 아동과 권리, 12, 189-210.
- 임현주, 이대균 (2013). 가구의 월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변인과 자녀의 기본생활습관 및 어머니의 양육방식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8(5), 1-22.
- 이숙희 (2010). 특별기고: 부모양육과 조부모 양육에서 연령에 따른 언어발달의 차이. 한국철학논집, 29, 351-373.

- 이정주 (2000). 부모의 학력 및 유아의 언어적 가정환경과 언어능력과의 관계.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란 (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요인 및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분석. 덕성여자대학교 일 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진희 (1999). 아동의 언어발달과 가정의 양육환경과의 관계. **재활간호학회지, 2(2), 234-242.**
- 임희수 (2001).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영애(1995). 가정환경자극, 사회인구론적 변인과 아동의 언어능력간의 인과모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4), 173-188.
- 정태숙, 김영희(2014). 어머니의 근무시간과 가사노동시간 및 가정-직장 간 갈등이 자녀 양육 방식과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보육학회, 18(2), 175-195.**
- 최문희 (2010). 취업모 가정 유아의 사회, 정서적 발달 결정 요인탐색:가정환경과 보육시설 특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혜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유아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한국 영유아교원교육학회, 19(5), 55-71**
- 통계청 (2015). **일·가정양립지표. 통계청 보도자료.**
- 현금옥 (2003). 어머니 양육 아동과 타인 양육 아동의 사회성에 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 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shiabi, G. (2000). Promoting the emotional development of preschool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8, 79-84.
- Altman, I., & Wohlwill, F. J. (1978). *Children and the environment*. New York: Plenum Press.
- Bloom, B. S. (1964).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New York: Wiley.
- Bodrova, E., & Leong, D. J. (1996). *Tools of the mind: The Vygotskian approach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Englewood Cliffs, NJ: Merrill/Prentice Hall.
- Britch, B. M. (1990). *Walking around inside stories : How children make meaning from narrative discour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ledo, OH.
- Bronson, M. B. (2000). *Self-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 Nature and Nurture*. NY: The Guilford Press.
- Conlon, A. (1992). Giving Mrs. Jones a hand : Marking group Story time more leasurable and meaningful for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47(3), 14-18.
- Ekwall, E. E., & Shanker, J. L. (1989). Teaching reading in the elementary school. 2nd ed. Columbus: Merrill.
- Eshel, Y., Landau, R., Daniely, A. & Benaaron, M. (2000). Adult attunement and child availability: Interaction of mother and caregiver with three-year-old kibbutz children.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1, 411-427.
- Emlen A. C., Koren, P. E., & Schultze, K. H. (1999). From a parent's point of view: Measuring the quality of child care. Regional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rvices, Portland State

- University.
- Guo, Y., Piasta, S. B., Justice, L. M., & Kaderavek, J. N. (2010). Relations among preschool teachers' self-efficacy, classroom quality, and children's language and literacy gain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6*(4), 1094-1103.
- Kochanska, G., Aksan, N., Penney, S. J., and Doobay, A. F. (2007). Early Positive Emotionality as a Heterogeneous Trait: Implications for Children's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6), 1054-1066.
- Luria, A. R. (1961). The role of speech in the regulation of normal and abnormal behaviors. Harvard Press.
- Luria, A. R. (1969). The role of speech in the regulation of normal and abnormal behavior. New York: Pergamon.
- Morrow, L. M. (1985). Retelling stories: A Strategy for improving young children's comprehension concept of story structure and oral language complexity.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85*(5), 648.
- Nation, K., & Angell, P. (2006). Learning to read and learning to comprehend. *London Review of Education, 4*(1), 77-87.
- Olson, S. L., Bates, J. E., & Bayles, K. (1990). Early antecedents of childhood impulsivity: The role of parent-child interaction, cognitive competence, and tempera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3), 317-334.
- Olson, S. L., Lopez-Duran, N., Lunkenheimer, E. S., Chang, H., & Sameroff, A. J. (2011).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early peer aggression: Integrating contributions of self-regulation, theory of mind, and parenting.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3*(1), 253-266.
- Pierrehumbert, B., Ramstein, T., Karmaniola, A., Miljkovitch, R. et al. (2002). Quality of child care in the preschool years: A comparison of the influence of home care and day care characteristics on child outcom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 385-396.
- Rimm-Kaufman, S. E., Cueby, T. W., Grimm, K. J., Nathanson, L., & Brock, L. L. (2009). The Contribution of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lassroom quality to children's adaptive behaviors in the kindergarten classroom. *Developmental Psychology, 45*(4), 958-972.
- Sulzby, E. (1985). Children's emergent reading of favorite storybooks: A development study. *Reading Research Quarterly, 20*(4), 458-481.
- Thompson, R. A.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5-52.
- Vygotsky, L. S. (1962).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MA : MIT Press.
- Wachs, T. D., Uzgiris, I. C., & Hunt, J. McV. (1971). Cognitive development in infants of different age levels and

from different environmental backgrounds: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Merrill Palmer Quarterly, 17, 283-317.

Zang-Waxler, C., Radke-Yarrow, M., & King, R. A. (1979). Child-rearing and children's pro-social initiations toward victims of distress. Child Development, 50, 319-330.

원고 접수일 : 2017. 07. 10

수정 원고접수일 : 2017. 08. 15

게재 결정일 : 2017. 08. 22